

독자와 함께

“의료·선교활동 산실... 근대문화재 지정을”

호남지역 선교사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지리산 선교사 수양관'

선교사들, 한국 풍토병 극복 위해 노고단에 건립 지리산 생태계 보존 명목 한 때 철거 위기 겪기도

일제 강점기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갖가지 풍토병에 시달려야 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속에서도 호남지역에 파견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선교·복음활동에 열정을 버리지 않았다. 또 풍토병을 이기기 위한 교육책으로 1921년 지리산 노고단에 수양관을 건립한다. 이것이 일명 그레이엄 캠프다. 선교사로 파견되어 우리 민족과 나라 잃은 설움을 함께하며 3·1 운동 선언문 작성을 지도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공학박사 출신 윌리엄 린튼 박사(한국명 인돈·1891~1960).

그리고에 위치한 구레 문수리 왕시루봉에 수양관 12채를 다시 세웠다. 선교사들은 수양관 건립과 함께 선교·복음활동을 다시 시작해 광주 기독교병원, 전주 예수병원 등 수많은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등 의료선교와 교육 선교 활동을 이어가며 호남지역 근대 문화의 산실을 이뤘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생명 연장 수단이었던 수양관이 있었음에도, 시대적인 배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인들 호화별장 운운하는 반론과 편협된 시각에 물려 반세기 세월이 지나버렸다. 이에 선교사들의 우리 민족 사랑의 표본이었던 지리산 수양관의 흔적을 소중한 근대문화 유산으로 보존하고자하는 의지를 모아 필자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2007년 12월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회를 설립했다. 보존연합회는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 선교사 수양관을 문화재로 지정될 말 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특히 왕시루봉 12채 선교사 수양관은 각각의 선교사들이 영국, 노르웨이, 호주, 일본 퇴직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건축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수양관으로 건축학자들의 큰 관심이 되고 있다. 보존연합회는 선교사 수양관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1억 원을 들여 (사)도코모모코리아(근대문화유산보존회)와 1년여의 조사연구를 끝냈고 지난해 11월에는 620페이지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출간



지리산에서 인돈 부부와 네 아들. 왼쪽부터 윌리엄, 드와이트, 휴, 유진.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은 풍토병을 극복하기 위해 지리산 노고단에 선교사 캠프를 마련했다. (한남대 제공)

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NGO 단체들은 물론 일반인까지 큰 관심이 되고 있다. 2007년 8월 지리산 생태계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철거위기에까지 갔었는데 이제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격동기인 근대사에 있어 과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서있는 위치를 바로 알게 해주는 소중한 교훈의 장소이다. 뜰어 없애는 것보다 보존하고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기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재조명되고 계승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오정희·(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회 이사

클릭! 맛집



봄맞이 원기회복! 메기탕이 최고

35년 한자리만 고집...얼큰·칼칼 '맛이 깊은집'

직접 담은 된장으로 메기의 비릿함을 없애고, 인근 밑에서 키워, 겨우내 말린 배추 시래기로 국물맛을 낸다. 어느 집에선 메기탕에 무청 시래기를 넣는데 씹는 맛이 쫄쫄, 이 집은 부드러운 가을 배추를 고집한다. 시래기와 남은 국물을 갖 지은 밥에 비벼 먹어도 별미다. 무엇보다도 35년간 한 자리에서 메기탕을 끓여온 주인장의 내공에 믿음이 간다. 밀반찬도 정갈하다. 잘 삶아 시원한 맛이 나는 배추김치, 총각김치와 매실장아찌, 각종 나물, 바삭하게 부친 파전 등 모두 맛보려면 젓가락이 바쁘다. 인근에서 사육한 닭을 골라 간장, 고추장, 마늘, 양파 등으로 맛을 낸 닭볶음탕은 맵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아 아이들에게 권할 만 하다. 메기탕 중 2만5천원, 소 2만원, 닭볶음 4만원. 문의 061-372-1210. /글·사진=오명록기자 kroh@kwangju.co.kr

Map showing the location of '영벽정식당' (Yeongbyeokjeong Sikdang) in Hanchon, Gwangju. The map includes landmarks like Hanchon Station, Hanchon IC, and Hanchon-ro. A small photo of a dish is also included.

분 날

박선자

추억의 한컷



배움 열정에 희망 '무력무력' 6·25 한국전쟁 후 폐허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만은 식지 않았던 것 같다. 1954년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전남대 의과대학 입학식 장면. (사진으로 본 광주 100년)

들날에 다가가면 이름 모른 들꽃 땀구 웃고 손짓한다. 하얀 눈 속 헤치고 나온 푸른 보리이따리 어름물속 헤엄치는 미꾸라지 봄날의 희망가를 부른다. 따란 이끼 낀 돌무덤 속에서도 살짜기 내린 이름 모른 들꽃

은행나무에도 조금씩 울터 오른 연두 빛 희망의 꽃잎이 띈다. 1937년 고충 출생 2004년 12월 계간 '문예시대' 신인문학상 시부문 당선, 2007년 '아동문학' 신인상 동시부문 당선 시집 '고희에 피는 사랑' 내 가슴에 불꽃 하나 등 광주시 문인협회 회원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효상공인중개사' (Hyo Sang Gong-in Jung-gae-sa) with contact info T.062-376-4056 and H.010-3128-1515. Services include land/leasehold, house, and commercial real estat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in-dong Sam-il Bu-dong-san) with contact info (FAX)223-1772 and 011-602-2532. Focuses on high-quality buildings and rental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태양광 발전소부지구함' (Tae-yang-gwang Jeon-jin-so Bu-ji-gu-ham) and '광주·전남권 중형마트 구함' (Gwangju·Jeonnam-gwon Jung-hyeong-ma-to Gu-ham). Offers various commercial and residential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Joo-gukmin Beop-bul-kyeong-mae) featuring a large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